

미얀마 사흘째 쿠데타 항의시위

총파업에 승려·의료진 가세

주말 양곤서만 수만명 거리 행진

근로자들 휴가 내고 속속 참여

미얀마 양곤에서 8일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거리 시위가 사흘째 계속됐다. 총파업 촉구에 호응한 근로자들이 대거 참여해 데다, 쿠데타 이후 '시민 불복종' 운동에 앞장섰던 의료진과 2007년 군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승려들이 가세하면서 성난 민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일부 현지 언론은 SNS 생방송을 통해 이날 오전부터 양곤 시내에서 수 백명의 시위대가 거리 행진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구호가 담긴 현수막을 들고 1988년 민주화운동 당시 불렀던 민중가요를 부르며 행진했다.

AP·AFP 통신 등 통신은 주말이 아닌 주중임에도 시위대가 오전부터 급속하게 늘고 있다고 전

했다. 현지 SNS를 중심으로 전날부터 급속하게 퍼진 총파업 촉구에 호응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곤에서 가장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A씨는 "직원 1000여 명이 아침에 출근했다가 시위에 참여해야 한다며 단체로 휴가원을 내고 공장을 떠났다"면서 "바로 옆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연락해 보니 마찬가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봉제 공장에서 일한다는 닌 따진(28)도 AFP통신에 "일하는 날이지만 봉급이 깎여도 일하려 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데타 직후부터 군부를 거부하며 비폭력 저항 운동을 주도했던 의료진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거리로 나섰다. 또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시위대 선두에 서서 행진하는 모습도 영상에 잡혔다. 이들이 나타나자 시위대가 손뼉을 치기도 했다.

불교 승려들은 2007년 군사정권의 급격한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도했다. 이른바 '샤프론 혁명'으로 불리는 이 시위 과정에서 수백 명이 상이 군부 강경 진압에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 시민들은 주말인 6일과 7일에도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날에는 양곤에서만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쿠데타에 항의했다.

군부는 시위 확산에 아직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폭동과 불안을 조장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매체나 개인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주말 동안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음을 확인한 군부가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7일 남동부 국경도시인 미야와디에서 경찰이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총기를 발포한 것이 신화탄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경찰이 고무탄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도 최근 만달레이 경찰의 내부 문서라며 경찰이 시위 통제를 위해 발포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얀마에서는 1988년과 2007년 군사정권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각각 3000여 명과 수백 명이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목숨을 잃었다. /연합뉴스



미사마치고 성당 나서는 바이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세인트 조지프 온 더 브랜디와인 기틀릭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손녀 나탈리와 함께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낙관론 거둔 바이든... "여름까지 집단면역 어려워"

"백신 불충분, 생산 밀어붙이는 중"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코로나19 집단면역이 올 여름 말 이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올여름까지 집단면역으로 항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11일 만에 뒤집은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방송된 CBS와의 인터뷰에서 "올여름 말 이전에 집단면역에 이를 수 있다는 구상이 매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백악관에서 지난 5일 촬영돼 7일 방송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다른 얘기가 됐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백신이 생산되도록 가능한 한 힘껏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내뱉었던 낙관론을 얼마 되지 않아 거둬들이는 셈이다. 그는 당시 "여름까

지는 집단면역으로 항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집단면역이란 백신 접종 또는 자연 감염으로 대부분의 구성원이 면역력을 지녀 전염병의 확산이 억제되면서 면역이 없는 구성원들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7일 현재 미국에서 이뤄진 백신 접종은 4121만회 정도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프로풋볼(NFL) 경기장을 대규모 접종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FL은 지난 주 바이든 행정부에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그는 "그것들을 활용 가능하다고 내가 언급했으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백신 공급에 있어서 미국을 생각보다 더 "무서운" 상황에 남겨뒀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등교 재개와 관련해서도 이르르면 오는 10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지침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트럼프 계정 영구 정지나 복원이나

페이스북 중대 결정 기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 영구 정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계정이 복원될 경우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온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지난달 6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벌어진 난입 사태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최소한 2주간 정지한다고 밝혔으며, 같은 달 21일엔 영구 정지 결정을 페이스북이 설치한 감독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소셜미디어 대법원'으로 불리는 이 감독위원회는 페이스북의 정책에 대한 자문 및 권고를 위해 지난해 가을 인권·표현의 자유 등 분야의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꾸려졌다.

페이스북은 특히 이번 사안을 감독위원회에 넘기면서 "정치 지도자의 계정 정지에 대한 의견 또는 권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내려진 결정이 향후 전 세계 지도자급 정치인의 계정 관련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페이스북은 그간 감독위원회의 권고를 대부분 이행했지만, 이번 심의에서 트럼프 계정을 영구 정지하라는 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퇴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 없다면서, 그가 페이스북의 정책을 이미 여러 차례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독위원회를 통한 계정 영구 정지 논의는 절차 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이자 옛 수도인 양곤 시내에서 8일(현지시간) 시위대가 독재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군부 쿠데타 규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10시간 철제의자에 묶여 지냈다"... 中인권활동가 고문 폭로

홍콩 매체 "식수 제한되고 굶주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퇴진을 요구했다가 수감된 중국의 법학자 겸 인권활동가 쉬즈용(47)이 고문을 당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철제의자에 묶인 채 보냈고, 식수는 제한됐으며 매끼 만두 한 개만 제공돼 오랜 기간 굶주림에 시달렸다는 내용이다. 또 한 달에 두세 번만 찬물로 샤워가 허용됐고 귀는 동상에 걸렸으며 감옥에서 이동할 때는 검은색 천과 무거운 헬멧을 뒤집어 썼다.

홍콩 명보는 8일 쉬즈용의 여자친구가 인권운동가 리차오추가 이런 사실을 5일 소셜미디어에 폭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남부 린이시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리차오추는 산둥성 구치소에 수감 중인 쉬즈용이 변호사와의 화상 접점에서 고문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리차오추의 부모는 체포된 딸이 '국가권력 전복' 혐의를 받는다고 전했다.

쉬즈용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쉬즈용은 2019년 12월 26일 푸젠성 사면시 '반정부'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수배됐다가 작년

2월 체포됐다. 쉬즈용은 중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절정이던 지난해 2월 4일 수배 중인 상태에서 시진핑의 퇴진을 요구하는 '권퇴서(勸退書)'를 발표해 파장을 몰고 왔다.

베이징대 법학박사 출신인 쉬즈용은 2003년 쑸즈강이라는 청년이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려 수용 시설로 끌려간 뒤 폭행당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법학자, 인권변호사들과 함께 '신공민 운동'을 결성했다. 이후 '신공민 운동'은 농민공, 철거민, 고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공익소송 등에 앞장서 왔다. /연합뉴스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N&B
Nim e Bsong Solar Energy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